

방사선치료 암 환자의 대체요법 경험실태 조사연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박철우, 강정훈, 박은태

연구목적 : 암 환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대체요법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암으로 진단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대체요법 경험 실태와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보고자 한 것이다.

대상 및 방법 : 연구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5개 병원 중 방사선종양학과에 내원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끝나고 추적조사에 있는 20세이상 성인 남녀 394명을 대상으로 대체요법 경험실태와 관련요인을 설문조사 하였다.

결과 :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53.2세로 23세부터 83세까지 분포하였다. 대체요법을 이용한 사람은 188명(47.7%)이었으며, 이들이 이용한 대체요법 총 종류는 68종이었고, 1인당 평균 7.3종을 경험하였으며 지출한 총비용은 평균 283만원이었다. 경험한 대체요법 중 검은콩(38.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미(38.3%), 영지버섯(37.8%), 느릅나무(33.5%), 상황버섯(30.8%) 등의 순이었다. 그 중 가장 시간, 비용, 노력 면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경험한 것은 상황버섯으로 나타났으며, 비용이 가장 많이 든 것도 상황버섯으로 평균 274만원이었다. 경험하게 된 동기는 병원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31.4%로 가장 많았으며, 권유한 사람은 가족 친인척(56.9%)이 가장 많았다.

경험군과 미경험군의 특성에서는 나이가 적을수록($p=0.001$), 학력이 높을수록($p=0.001$), 소득이 많을수록($p=0.030$), 대체요법 경험율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항암제 치료 병용여부에 따라서는 항암제 치료를 받은 군에서 대체요법 경험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5$), 방사선 치료 만족도가 낮을수록 경험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p=0.001$). 또 대체요법 미경험군에서 음주횟수가 유의하게 많은 경향을 보였다($p=.046$). 배우자 유무, 직업, 종교, 다른 질병 유무, 방사선 치료종 및 완료여부, 암에 대한 수술 여부와 흡연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요법 미경험군에서는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대체요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가 34.0%였으며, 병원 치료에 역효과를 줄 것 같아서도 22.3%로 나타났다. 대체요법 미경험군의 58.7%는 정부나 연구기관에서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된 대체요법을 소개받을 경우 주치의와 상의해서 시행하겠다고 했으며, 21.9%는 경제적인 능력만 되면 시행하겠다고 응답했다. 가족의 적극권유시에는 73.3%가 시행하겠다고 했으며, 27.2%는 그래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결론 :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대체요법들은 환자나 보호자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대체요법에 대한 의학적 효과와 안정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